

김광조씨(51)는 목요일이면 아깁없이 아침 일찍 대장사 동구 대성동 영복선원을 찾아 푸쳐님께 삼배를 올린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강의에 들어가면 부처님 전에 상좌반은 아이들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골주린 애정을 분노로 표현하기 일쑤인 아이들을 보살의 마음으로 감싸주는 발원이다.

작은 실천 큰 기쁨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심사를 받기 전에 보람에서 두 달가량 머무는 임시 수용소로 부모의 면회와 인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곳이다.
"언젠가 일일담임을 맡아 하루종일 심사원에 머물던 날, 6개월형을 선고받은 여학생의 울부짖음이 가슴이 아파 살며시 안아주었으나 여학생은 몸을 피하려더군요." 가슴이 아파 대신 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심사원에 들어온 그 여학생이 김씨를 '이웃집 아줌마' 보다는 더 먼 사람으로 대했던 것이 갈래 가슴아팠다고 당



시 심정을 전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는 청소년들 역시 "깨물면 아픈 손가락" 이기에 김씨는 꾸준히 그들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희망을 심어주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수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두 번 무료강의를 시작한 것은 올해 초 대전시 교육청에서 학생상담 자원봉사를 9년째 해 오다가 대전자원봉사센터와 인연이 닿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무료강의를 시작했다.
처음 마주 앉아서 눈길을 피하던 아이들이 두 번째 만남에서는 다소곳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김씨는 함께 울음을 터뜨린다. 강의가 끝나고 찾아와 자신의 심정을 털어 놓는 아이들도 그에게는 소중한 인연이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아이들이 다 내 자식같다는 김씨. 상담을 통해 만났던 아이들이 밝은 모습을 되찾을 때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 기쁨은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날때마다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된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문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청소년 지도사 양성하자”

문화부 '자원봉사센터' 275곳 개설 추진 운영 능력있는 종교단체 등에 위탁 계획

불교계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키우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내년부터 5년동안 전국 2백75개 시군구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개원,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관리 능력과 센터가 들어설 건물을 보유한 단체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할 방침이다. 센터 관

리 인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대략 5명 안팎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기 위해서 공간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단체는 문화관광부·자치단체지급금, 국가보조금등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부 청소년기획과 최용길 서기관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자치단체, 교육부와 연계해 자원봉사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국에 설립될 자원봉사센터는 그 대상을 일반인에게까지 넓혀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분류, 매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통해 선발되는데 올해는 11월22일에 자격검정이 있을 예정이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비경력자는 전문대졸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3백70여명, 2급 지도사는 1천6백여명, 3급 지도사는 1천3백여명이다. 이에 비해 불교계에서는 1급 지도사 10여명 정도만 활동하고 있다. 2·3급 지도사 숫자는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17개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자원봉사를 통한 청소년 심성정화



○2천여명이 동참한 수덕사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예신=고영배 기자)

“참회로 열린마음 경제회생”

수덕사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2천여명 동참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신종사에 이어 5월25~26일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2천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경제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원하는 한편 실천자와 결속아동을 돕는 기금을 마련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율주)가 주최하고 조계종 수덕사가 주관한 이번 법회는 파사현정 실천을 위한 철야 참선과 사찰 차원에서 처음으로 우리 농·축·수·임산물 공동적거래 장터가 열려, 장전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살리기에 앞장섰다.

26일 오후2시 수덕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회향법요식은 수덕사·향현사 합창단의 은은한 찬불가 속에서 경과보고 대회사 법어 기원사 발원문 우리 의다짐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원당 수덕사법장스님은 조계종총회회장 설경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용맹스럽게 정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대회사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으로 파사현정의 의지를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종 총무원장 윤덕스님은 기원사에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국민화합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신남관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길을 총무실장이 대독한 기원사를 통해 "국민 모두 주인 의식으로 힘을 합치며 불교계의 지도적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도 부처님의 고령장수를 받들어 더욱 정진하자고 기원했다.
이어 서석재국회작회장과 함께 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화합과 발전의 열매를 맺어 줄 수 있다. 이번 참회대법회는 국민에게 화합과 발전의 열매를 맺어 줄 수 있다. 이번 참회대법회는 국민에게 화합과 발전의 열매를 맺어 줄 수 있다.

신의 실천을 통해 국난극복에 앞장서겠다"는 김현곤조계종중앙신도회장의 대사와 "우리의 다짐이 울려 퍼지면서 회향했다."
3면에 계속

사찰림에 화장장 납골당 허용 규제개혁위, 장묘시설 신고제로 완화

민간활동가구인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필총리서리·이진실안동대총장)는 3월24일 올해안에 사찰림 등 공익임지에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묘지공안내의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제지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불교계에서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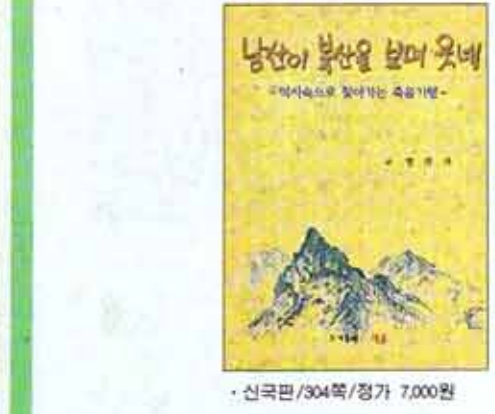
불교문화 체험기행

6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철조비로차나불과상(국보 제83호)과 삼층석탑(보물 제238호)이 있는 도피인사, 지장도량 심원사, 6.25때 치열했던 격전지 '철원 노동당사'와 '땅굴' 등을 찾아갑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6월 '6·25 격전지를 찾아'
'도피인사, 심원사, 철원 노동당사, 땅굴'
출발: 6월 21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회비: 3만원·초등학생 2만5천원(도시락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02-04-221460(신정호)
지니 동선, 가족단체 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역사속으로 떠나는 죽음기행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고은 추천사에서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담은 끝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5.5.

도서출판 혜운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3462-2277 팩스: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웃을 입읍시다.

우리웃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①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②

문의처 02)3461-8552-3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